“기복 탈피에서 불교 중흥 온다”

조계종 포교원 13일 신행혁신 학술연찬회서 한 목소리

김재성 박사, 초기불교 중흥 분석
발심 · 보시 · 지계 · 정진 일치
“청빈 생활, 승가 공유 재정립 해야”



연찬회에 발제자로 나선 학자들은 각 시대 구분을 넘어 기복문화 탈피가 불교 발전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처님께서 말한 믿음은, 현시대의 기복이 아닌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었다. 초기불교 불교 전도의 성공요인은 바로 기복 탈피에 있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불광연구원은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학술연찬회 ‘불교 신행혁신 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각 시대별 신행혁신운동을 살피고, 한국불교 신행혁신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초기불교에서의 불교 중흥과 현 시대를 비교한 김재성 교수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붓다와 초기불교의 신행혁신’ 발표를 통해 부처님 재세시 부처님이 가르친 믿음이 지금의 기복이 아닌 궁극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며, 기복탈피를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믿음은 수행에서 중요한 관문이 되지만, 부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먼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법을 설명하고, 믿음이 생긴 출가와 재가 제자들에게 더 진전된 차제법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특히 차제법을 강조하며 김 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친 다양한 수행 중 핵심적인 것은 정진과 마음챙김, 그리고 지혜였다. 여기에 믿음과 삼매를 더해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초기불교의 전도의 성공요인에는 이런 신행혁신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도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계율을 함께 지키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승단의 형성, 최소한의 소유말만을 인정하는 승려들의 청빈한 생활방식, 재가자의 의식주와 약품 보시, 재가자가 보시한 보시물을 사방승가가 공유하는 제도 확립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보시를 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고, 자애심을 기르고, 지혜를 계발하여 해탈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실천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공덕이 되어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었기에 초기불교는 성공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신상환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은 ‘대승불교운동과 신행혁신운동’ 발표를 통해 “오늘날 불교의 문제는 교학불교의 결여 또는 결핍이다. 선교일체, 지관쌍수 등으로 표현되는 대승불교의 통섭적 사유에서 어느 한쪽이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의 풍토”라며 “한국불교의 모습에서 실망한 재가불자들이 남방이나 티벳불교의 체계적인 교학에 눈을 돌려 그 수행법을 국내에 소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기복 및 제례의식으로 행하는 신행생활은 타종교와의 차이점을 점점 흐리게 만들어 불교가 가진 자기 역동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선종과 신행혁신 운동’을 발표한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강학과 대화를 통해 선종 전통을 다시금 확산시켜야 한다”며 “간화선 전승과 전통을 현대언어로 재구성할 줄 아는 ‘선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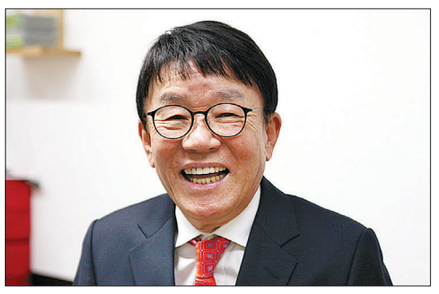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음악회도 즐겁게, 불자 新舊조화로 활성화”

Interview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 제13대 회장



‘타타타’로 유명한 가수 김국환〈사진〉 씨가 5월 18일 대한불자가수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나운하 전임회장이 6년간 불자가수회를 이끌며 일궈온 성과를 이어, 발전하는 대한불자가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음성포교사로서 신명나는 생활불교의 선행단체가 되도록, 내적으로는 회원복지와 단합된 마음으로 많은 행사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불자가수회는 현재 2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1990년 창립 후 점점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못했다. 가수들이 응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바로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좋은 무대를 만드는데 대한불자가수회가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가요제를 비롯해 군부대와 교도소 위문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사찰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나이가 많거나 지명도가 낮은 가수들이 나온다는 인식을 바꿔야지요. 좋은 무대가 마련되면 알아서 불자 가수들이 공연장을 찾을 겁니다. 젊은 가수들 중에 불자가수를 발굴하고 젊은 불자들도 이런 가수들의 무대를 보러 모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먼저 사찰과 스님들에게 존재를 알리는 일에 나선다. 내부적으로는 큰스님 초청법회 정례화 등으로 정체성도 확립한다.

“창립 27주년의 중견 신행단체인 대한불자가수회를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원가수들이 하나로 뭉쳐 삶도 봉사도 하나가 돼 신명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뿌리가 깊지 않은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대한불자가수회를 지켜주신 원로 가수들과 신임 불자가수들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가수회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생명존중운동본부 호스피스 첫 교육


불광사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듣는 불자의 모습.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호스피스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강좌가 마련됐다.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는 5월 16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과 호스피스’ 강좌를 개강한데 이어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두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개강에서는 대구의료원 지도법사 정법 스님 등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나서 불교호스피스를 설명했다.

정법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죽어가는 이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호스피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좌를 개최한 임정애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호스피스로 대변되는 웰다잉은 죽음을 고찰해 삶을 의미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지키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도 2차 강연회가 열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는 23일과 25일에도 서울 불광사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양주 육지장사 제1회 이민다문화 가족축제 개최

6월 10~11일 총 4개 행사 구성 ‘눈길’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6월 10~11일 한국 이민 · 다문화정책연구소와 함께 육지장사에서 제1회 직업문화체험 · 다문화 가족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지대 산업대학원 다문화사회전문가 그룹의 음악 및 미술심리상담 △시니어 해피드림의 핸드메이드 공예 △민들레 다문화가족 사랑나눔회의 국제결혼가정 문화체험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다문화 상담 교육 등 총 4개 부스가 마련된다.

육지장사 측은 “템플스테이 형식에 축제를 더해 다양한 다문화 체험의 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다문화사회를 맞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가정의달 맞아 소외계층 돌봄 활발

각 복지관 독거어르신, 장애아동, 산불이재민 등 보살펴


무산복지재단이 전달한 구호물품.

가정의달인 5월을 맞아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5월 19일 장애 · 비장애 통합활동 ‘옆자리를 드립니다’를 개최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2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해 복지관 이용 장애인 20명이 서울대 의대생과 짝을 이뤄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천연비누 및 캔들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경희)는 5월 11일 어버이날을 맞아 블랙야크와 함께 ‘야크 효 박스’ 전달식을 개최했다. 야크 효 박스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독거어르신 지원 강화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구성한 8만원 상당의 식생활용품으로 이날 전달식에서는 복지관 어르신 56명에게 제공됐다.

야크 효(孝)박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어버이날 찾아오는 자식들도 없고 외롭게 보낼 줄 알았는데, 카네이션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어 고맙다”, “유용한 물품들이 담겨있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5월 8일 조계사와 함께 약 30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르신축제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일주문에서는 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맞이했으며,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축하공연으로는 김미숙 한국전통무용가의 교방무와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무산복지재단은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정에 자비의 구호물품을 전했다. 강릉지역에는 컵라면 2400개와 후원금 300만원을 삼척지역에는 물 1000개와 컵라면 2400개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